

지역 소식통



부안 행안면, 인구 늘리기 캠페인

부안군 행안면이 지난 24일 제2농공단지 내 대규모 닭고기 전문업체인 참프레를 찾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2번째 부안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김남철 행안면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직원들은 출산장려지원사업, 부안군나눔마중장학사업 등의 부안군 전입 시 지원혜택이 적힌 홍보물을 나눠주며 살기좋은 부안군으로 전입하기를 적극 독려했다.

이른 아침 파곤함에 지친 참프레 직원들에게 홍보 전 단지를 나누어 주며 힘찬 아침인사를 전하는 행안면 직원에게 전입 방법을 물어 보는 등 지난해 1차 캠페인보다 더욱 적극적인 전입의지를 보였다.

김남철 행안면장은 앞으로도 참프레 이외의 농공단지 업체를 순회하며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부안 인구 늘리기에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 운영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을 운영했다.

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스마트폰 친한 친구 만들기' 캠페인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완주군 청정테마힐링센터에서 운영된 캠페인에는 지역 내 중학생 40명이 참여했다.

캠프에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단절된 자연환경에서의 모험체험과 수상 체험 등 다양한 대안활동이 진행됐다.

참가 학생은 "부모님의 참가 제의를 받고 별 기대 없이 참가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해소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중독예방 교육, 대안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수산물 판매 · 식당 · 민박 한 곳에서

고창군, 구시포자율관리공동체 수산물 복합 활성화센터 준공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어업인 스스로 수산 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우수 자율관리공동체를 선정해 어업생 산성 향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총 10억원을 투입, 구시포에 '수산물 복합 활성화센터'를 완공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자원증가와 어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 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주요활동 실적에 심의해 우수 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시포 자율관리공동체'는 2003년 결성돼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면서 지난 2015년에 선진 공동체로 선정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2015년 10억 사업비를 확정하고, 올 1월 착공해 6월에 수산물 판매장 식당 민박 등을 갖춘 수산물 복합 활성화센터'를 완공해 28일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은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



장, 김기현 의원, 조규철 의원 어촌계장과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우정 군수는 "구시포 수산물 복합 활성화센터를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수의 창출과 경쟁력 강화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어업인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신규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재해 예방 예산 확보 총력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민선 6기 취임 직후부터 재난재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며 용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 했고 건동천과 주진천 정비사업을 하루빨리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칠암천은 올해 지방하천정비사업 신규 사업으로 예산 확정돼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계획영역에 착수했다.

특히 고창읍 도심을 관통하는 고창천 홍수예방을 위해 도시집수 예방 종합사업을 신청해 1차 대상후보사업 2개 대상지구 선정돼 2018년 사업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고창천 상류에 있는 노동저수지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증액을 통해 저수량을 늘려 홍수피해 예방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지난 7월 10일 송하진 지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25일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현황을 설명하고 노동저수지 관련 사업비 49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또한 대신천 주변 농지 상습침수 개선을 위해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80억원)과 한우 젖소 등 축산농가의 안정적 양질의 사료공급을 위한 TMR공장 신축사업(30억) 예산반영을 건의했으며, 이날 김영록 장관은 전격적인 농촌 지역인 고창군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서남권 추모공원, 최상의 서비스 제공 '호응'

윤달기간 화장 회차 · 횡수 늘려 화장시설 특별운영

서남권추모공원이 윤달기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서남권추모공원은 이 기간 화장시설을 특별운영, 화장 회차와 횡수를 대폭 늘려 크게 늘어난 화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했다.

추모공원에 따르면 개장유골 화장(火葬)은 총 1616건으로 평상시 1일 평균 6건에서 56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시신 화장과 봉안당 자연장도 888건에 달했다.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음달 2·7일 '청소년 보호 여름방학 해변 캠페인'

변산 · 고사포해수욕장서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해수욕장 이용 청소년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격포체석강에 이어 다음달 2일 변산해수욕장 7일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청소년 보호 여름방학 해변 캠페인'이 펼쳐진다.

이번 해변 캠페인은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부안경찰서, 부안교육

추모공원은 "화장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개원 이후 1년 8개월간의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장 이용은 정읍과 고창, 부안 김제 등 4시군이 98%를 차지하여 주민들의 화장 문화가 정착돼가고 주민들의 장사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모공원 근무자들은 휴무 없이 비상체제로 근무하며 윤달기간 폭주하

는 개장유골 화장 수요에 대비해 예비 화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또 인터넷 예약자 외에도 현장 방문 접수자에 대해서도 화장 완료 시까지 화장료를 연장 운영 편의를 제공했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고객소리에 힘입어 예약을 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현장접수라도 화장을 할 수 있어 고맙다"는 의견과 '추모공원 근무자의 친절에 만족하고 내부시설이 청결하며 시스템이 수도권 소재 추모공원 보다 좋다'는 의견 등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도하고,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1388 청소년전화 홍보캠페인도 함께 이뤄졌다.

해변을 찾은 청소년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해변을 찾았는데 휴양지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해주어서 좀 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을 즐기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지도·점검

정읍시보건소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기간은 내일부터 8월 25일까지이고, 대상은 공공의료기관 4개소, 다중이용시설 36개소, 공동주택 11개소 모두 9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이다.

보건소는 이 기간 설치 시설 관계자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지도하고 충격기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또 월 1회 이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는지, 그 결과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터넷에 등록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심장이 멎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는데, 이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해 보건소는 심 정지 환자의 생



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홍보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재배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퇴직토사사수목 등을 정비해 집중호우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재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총예산 2800만원으로 각 읍·면에 100만원씩 우선 재배정에 퇴직토사가 많이 쌓인 소하천을 우선순위로 계획하며, 각 읍·면은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소하천 모니

터링을 통해 재해예방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유지에 대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찰 및 피해신고자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예비비 확보 및 재난기금 활용하여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details about gift sets and prices.